

韓國 檢査들의 問題點

田 溶 新

高麗大學校 心理學科

1

韓國心理檢査 製作家 協會라는 것이 생기고, 그 안에 心理檢査 審査 倫理委員會가 發足하였다. 그의 첫 事業이 1968年 7月末에 韓國에서 發行된 心理檢査를 整理하는 것이었다. 心理檢査라함은 學力檢査부터 知能檢査, 適性檢査, 性格·興味 檢査에 이르기까지 檢査를 總網羅한 것이다. 여기서 例外되는 것은 非販賣用 檢査(石炭公社, 産業適性檢査, 서울 文理大 編)와 臨時的 目的으로(主로 實驗用) 使用되는 檢査等이고, 一段 市場에 나온 것이라면 全部를 對象으로 한 것이다.

全體部數를 세어 보니 160餘種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A-B型이 있는 것은 따로 세어서). 韓國에 처음으로 市場으로 나온 檢査는 1955年의 “簡便知能檢査”와 “標準化 算數 學力檢査”라고 생각되는데 不過 12年만에 160가지나 나왔으니 檢査界로서는 우선 敬賀할만한 일이다.

數畵으로 보아서는 以上과 같았으나 質로 보아서는 만드서 그렇지 못하다. 以下 이 點에 關하여 몇 가지 問題點을 提起하고자 한다.

2

心理檢査란 Anastasi(1961)가 말한바와 같이 “A psychological test is essentially an objective and standardized measure of a sample of behavior”이다. 여기서 注意할만한 말은 *objective*와 *stand-*

*ardized*와 *sample*의 셋이다.

모두가 紙筆檢査인 前記 韓國 檢査의 行動의 標集은 勿論 紙筆的인 것이다. 그것이 知能, 適性, 또는 性格까지 나를 수 있는가 이다.

첫째 우리는 紙筆能力的 限界라는 것이 問題다. 勿論 紙筆로서 可能的 限度內에서 다룬 것이 고, 또 그렇게 定義되었다 하여도, 如前히 實地의 일과 종이의 일과는 다르다. 여기에 實地의 일 代身에 종이의 일을 써도 좋다는 證據를 보일 必要가 있다. 이것이 妥當度인데, 經驗的인 妥當度가 얼마라는 것을 보인 檢査가 없다. (妥當度의 問題는 後에 論及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檢査는 實地의 일과는 아주 다를지 모르는 종이의 일에 局限되어 있다. 이 종이의 일에 能熟한 것이 어느 程度로 實地의 일에 反映되는가는 모르고 있다. “이 問題들을 풀어서 解答을 내는 사람이, 實地로 그런 事態에 直面하였을 때 解決하는 能力이 크다”일 것인데, 事態와 紙筆 問題間에 學力檢査처럼 어느 程度로 自明한 것도 있지만 適性檢査나, 性格檢査에서처럼 그렇게 簡單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 점은 美國의 檢査에서도 “되도록 模擬的인(miniature) 檢査를 만들어야 하고 그 經驗的 妥當度を 檢證하는 것이 極히 要請된다는 事實로서도 알 수 있다.(Tiffin & Greenly, 1939).

둘째로 標集일 바에는 多樣한 혹은 特色 있는 標集의 可能性에 關한 問題이다. 例를 學力檢査에 든다면 A檢査나 B檢査나 꼭 같은 行動을 다루고 있다. 英語를 든다면 “讀解力, 單語, 發音 翻譯, 作文, 文法, 句讀點, 文體, 말하기 等等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한 檢査로 (50-60分)英語學力의 모든 것을 測定하려고 하고 있는 概觀式 檢査(survey test)에서는 不可避한 것이지만 그대로 좀 色다른 檢査가 있지 않을까?

美國에서 가장 有名한 檢査로서 World Book Co. 의 Metropolitan Achievement Test(1959)나, E.T.S.의 STEP(1956)이 있다. Metropolitan에서는 英語를 Word Knowledge, Word Discrimination, Reading, Spelling, Language (Usage,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Parts of Speech and Grammar, Kinds of Sentences), Language Study Skills로 無慮 6개의 檢査를 다루고 있다. 각 部에서는 間題를 數많은 數가 다루고 있다.

STEP에서는 英語를 Reading Comprehension, Writing, Listening, Essay의 4 檢査로 다루고 있다. Essay는 大膽한 主觀式 論文쓰기로 探點하는데 必要한 諸般 措置를 講求하고 있다. 그 밖의 檢査는 文章當 5~6 間題로 一定한 形式으로 配列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 檢査의 一部를 떼어다 B 檢査의 一部로 옮겨 넣는다 하여도 조금도 異常할 것이 없는데 反하여 Metropolitan과 STEP은 그 類型이 全然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結局은 檢査 使用者가 各其의 特色을 考慮하여 이번에는 이것, 저번에는 저것을 고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쓰나 저것을 쓰나 마찬가지이므로 거기의 業者들의 宣傳, 強賣等 우리로서는 歡迎하지 못할 여러 가지 手段이 動員될 可能性이 있다.

지금 例를 學力檢査에 들었지만 더 甚한 것은 所謂 GATB이다. 原版을 어디서 昐는지 不明이지만 똑같은 類型의 檢査가 3~4種나와 있다. 더구나 生命이라고 하여야 할 經驗的 妥當度의 檢證 없이, 外國에서 한 職業分類에 따라 適當히 알맞는다고 생각되는 能力을 配列하였음을 指摘할 수 있다. 信賴度가 낮은 檢査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強行될 수 있지만 妥當度가 未知인 檢査는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結果를 내놓을 수도 있으니 寒心할 노릇이다. 이런 檢査로서 “適性”을 決定짓고 말 것이니 國家的 見地에서도 危險하기 짝이 없다.

行動의 標集이라는 데에서, 標集이 정말로 能

力을 代置할 수 있는가, 좀더 多樣한 또 特色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指摘한다. 後者의 特色있는 檢査를 만드는 데에는 製作家의 創意性이 一層 要請된다. 남의 만든 檢査를 흉내내지 말고, 좀더 獨創的인 것을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問제되는 것이 “standardised”이다. 標準化란 말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中에서 “標準”을 問題삼으려고 한다. 標準이 없는 檢査는 없다. 그러나 標準이라고 나왔는데 全然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問題다. 審査委員 中에서 使用者를 代表하는 分의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標準化를 하였는지 全然 알 수 없다”는 것이 몇 개 있다. 그러나 적어도 檢査要綱에는 標準化 集團이 어느 學校들이라는 것, 이것이 不可能할 경우는 그 程度를 알리는 (例를 들면, 上 2校, 中 5校, 下 3校式으로) 것이 있으면 좋겠다. 後尾에 標準校를 일일이 적어 놓은 檢査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믿을 수가 있어 매우 믿음직 하다는 이야기다.

또 知能檢査에서는 같은 檢査名으로 國民學校 上級用, 中學校用, 高等學校用, 大學用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國民學校 때 IQ 120였던 것이 中學校 때는 110이 되고 高等學校 때는 100으로 떨어진다고 不平이다. 지금 大學生의 知能을 查해보면 100을 中心으로 分布될 것이다. 當然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檢査의 母集團은 大學生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Q 恒常性(constancy)과는 矛盾이 된다. IQ가 120은 되어야 大學生活을 마칠 수 있다는 一般人의 생각에서는 100이라면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져 失望이 아닐 수 없다. IQ가 떨어지는 것이 普通이고, 또 다른 한편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美國의 DAT(1947)도 特殊하게 母集團을 高等學校生으로 잡고 있다. 그 밖에 特殊한 目的으로 使用하는 檢査(e.g. SAT 또는 Law Aptitude Examination etc.)는 母集團을 制限하는 수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IQ는 늘 같은, 即

美國國民全體를 가리킨다. 따라서 各檢査의 IQ가 다르다는 問題는 檢査의 信賴度나 妥當度에 關한 問題이지 韓國에서와 같이 母集團의 異質性에 關한 問題는 아닌 것이다.

지금 韓國의 檢査들 中에서 KWIS(韓國版 Wechsler 知能尺度)의 母集團이 國民全般이라는 點을 考察할 때, 모든 檢査의 IQ를 KWIS의 그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랬을 때 大學 生들만을 母集團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KWIS의 IQ로는 얼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느 檢査든지 같은 尺度로 換算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또 덧붙여 말할 것은 個人用 檢査의 不振을 들 수 있다. 前記 KWIS는 12歲 以上이니 그 以下의 年齡層에서 綿密한 知能을 무엇으로 測定할 것인가? 막대한 費用이 들지만 낮은 年齡層의 個人用知能檢査는 時急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規準을 낼 때 어떻게 標集을 잡느냐 하는 것은 檢査 製作家로서도 眞摯하게 다루는 問題이다. 잘못 잡으면 그 檢査 전체가 無用之物이 되어 버린다. 이 점에서 各檢査는 檢査대로 제 나름대로 그 最上의 길이라고 믿는 것을 試圖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나올 檢査도 더욱 더 標集(被檢者의 選擇)을 慎重히 하여야겠다.

이 점에 關해서 한마디 添加하여야 할 일이 있다. 所謂 世稱 一流 中高校에서는 被檢者를 얻기가 甚히 困難하다. 그런 學校에서 이 檢査를 實施하여 보면 모든 學生이 95%타일 이상이어서 辨別이 안된다. 이 檢査에서 그런 學校의 標集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意味에서 時間은 貴重하겠지만, 檢査의 標集도 또한 意義있는 일이므로 그런 學校의 협력이 切實히 要求된다.

4

다음으로 “objective”가 問題다. 客觀性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同一한 意味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檢査의 用語로서 信賴度와 妥當도가 여기에 들 것이다.

信賴度는 어떤 方式으로나 거의 다 算出되고 있어 別로 할 이야기가 없으나, 妥當度에 關해서

는 問題가 있다. 最近에 나온 APA의 Standards (1966)에 依하면, 妥當度를 (1) 內容妥當度, (2) 準據에 關聯된 妥當度(criterion related validity), (3) 構成妥當度(construct)로 가르고 있다. 準據에 關聯된 妥當度라는 것은 獨立的으로 採用된 準據(評定, 當落의 二分, 其他 他檢査의 成績等)와 그 檢査의 相關關係를 말한다. 他檢査와의 相關關係(Concurrent validity)를 除하고 모두 一定한 時間의 經過가 있어야만 準據에 關聯된 妥當度를 算出할 수 있다.

準據에 關聯된 妥當度는 檢査의 出版 當時로는 算出되지 않는 것이 普通이지만 그러나 그 損缺은 곧 補充되어야 할 性質이다. 그런데 10年 以上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것은 아직도 研究되어 있지 않다는 證據다. 특히 이 妥當度는 知能, 適性, 性格檢査에는 重要하다. 이것이 韓國의 檢査에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는 理由를 推測하여 보건대, 研究心의 解弛, 資金의 下足, 出版社의 無誠意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經驗的 妥當度(準據에 關聯된 妥當度)를 내는 것은 作成者의 義務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스스로의 檢査成績이 準據가 되는 學力檢査, 또는 性格檢査 등도 적어도 類似(隣接領域)한 檢査間에 同時妥當度(共因妥當度라고도 함) 程度는 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檢査의 有効期間이 問題다. 教科書가 바뀌었는데도 如前히 同一한 檢査를 낸다는 것은 별로 혼하지는 않지만 있는 것도 事實이다. 事實 MMPI 같은 檢査는 아마도 몇十年 繼續될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規則은 없다 하여도 學力檢査는 5年, 團體用 知能檢査는 10年, 個人用知能檢査는 20年이 그 大概의 標準이 아닌가 생각된다. 너무 남은 檢査도 間或 눈에 띈었다.

5

以上이 韓國의 心理檢査를 閱覽하여 얻은 結論이었다. 前記 倫理委員會에서는 이 作業을 하기 前에 于先 審査基準이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前記 APA 의 Standards 를 參考하여 簡略한 基準을 만들었다. 이것은 從來의 1954 年の APA 에서 나온 Technical recommendations for psychological tests and diagnostic techniques 와 같은 해에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에서 나온 Technical recommendations for achievement tests 를 합쳐서 나온 것으로 대단히 廣範圍하고 嚴密하다. 倫理委員會에서는 그것들은 다 包含하는 基準을 만들기에는 時期尙早이므로 그 중에서 23 개만을 택하였다. 앞으로 漸次로 基準을 補強할 豫定이다.

倫理委員會는 事後 審査였으므로 既得權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어서 거의 다 通過시켰으나 (條件附로 通過된것도 多數임) 앞으로는 좀 더 嚴密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s and manuals. Washington: Amer. Psychol. Assoc., 1966.

Anastasi, A.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1961, p. 21.

Bennet, G.K., et al. *Differential aptitude tests* N.Y.: Psychol. Corp., 1947—1959.

Cooperative Test Division. *Sequential tests of educational progress.* Princeton, N.J.: Educ. Test. Serv., 1956—1958.

Durost, W.N. et al. *Metropolitan achievement tests,* Tarry-townon-Hudson, N.Y. World Book Co., 1959—1961.

Tiffin, J., and Greenly, R.J. Experiments in the operation of a punch press. *J. appl. Psychol.* 1939, 23, 450-460.